metro

메트로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평창대회기 도착 환영 26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도청 앞 광장에서 동계올림픽 대회기 도착 환영식과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 화합 행사가 열렸다. 최문순 강원지사(왼쪽)가 이석래 평창군수에게 넘은 올림픽 대회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디젤車 고속 주행…"시장이 뜨겁다"

국내 완성차 잇달아 출시 1년새 판매 19% 늘어

친환경차와 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디젤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가 디젤 승용차를 새롭게 내놓고 신규 고객 붙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규 등록 차량의 유종별 비중은 경유 43.5%, 휘발유 42.5%, LPG 11.4%, 하이브리드 2.5% 순으로 경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중에서 휘발유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비용 부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65만5847대가 팔렸고 LPG차는 1.1% 감소한 15만5452대 등록에 그쳤다.

반면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 높은 연비 덕에 레저용 RV차와 수입 디젤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40만2961대가 등록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GM은 쉐보레 말리부에 디젤 모델을 추가한다. 오는 3월 6일 등장할 쉐보레 말리부는 2.0ℓ 디젤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160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성능을 낸다.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고 최고 시속은 213km에 이른다. 0→100km/h 가속 시간은 9.7초로 빠른 편이다. 유럽 기준 연비는 도심 15.2km/ℓ, 고속도로 23.8km/ℓ다.

2014년형 북미형 말리부는 앞부분 디자인이 바뀌었고 2.0 가솔린 터보가 추가됐으나 한국 출시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북미형은 뒤 시트 디자인을 바꿔 무릎 공간을 넓혔으나, 한국형 모델은 기존 모델대로 생산한다. 정차 중 엔진을 정지시키는 엔진 스타트 스톱 시스템도 북미형에만 추가되고 한국형에는 장착하지 않는다.

한국GM 쉐보레 말리부 위 와 르노삼성 SM5. /자사 제공

르노삼성도 같은 등급인 SM5에 디젤 모델을 추가해 오는 3분기에 선보인다. 르노삼성은 이미 수출용 SM5에 디젤 모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출시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이고 0→100km/h 가속 시간은 10.3초다.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도심 14.3km/ℓ, 고속도로 21.7km/ℓ를 나타내 가솔린 모델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이미 i40에 디젤 모델이 있는 데다 쏘나타(YF) 하이브리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3월 데뷔하는 신형 쏘나타(LF)에는 우선 가솔린 모델부터 단계하고,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뒤에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디젤 승용차를 잇달아 선보이는 것은 수입 디젤 승용차의 인기가 뜨겁기 때문이다. 뛰어난 연비에다 운전 재미까지 갖춰 많은 운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고, 이러한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디젤차 승부가 본격화되면서 흥미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덕대기자 forrest5@metroseoul.co.kr

대학생 '다단계' 모집 주의보

고수익 유혹 합숙에 물품 떠안겨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대학생 구직란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 동기 등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회사로 유인, 2~6개월 만에 월 500만~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또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법 다단계 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 구입 시 환불에 대비해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물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공정위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두면 증거 자료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윤주영기자 bm@

어처구니 없는 의협·의발협

기자 수첩
황 재 용
<생활경제부 기자>

지난 21일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의 전 회원 투표가 26일 오전 투표율 50%를 돌파했다. 투표는 의료계 총파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총파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만약 총파업이 가결되면 다음달 10일부터 의료계는 총파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총파업 투표 전 보건복지부와의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 논의를 통해 원격의료,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제는 합의문 발표와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발협의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합의문 발표 직후 협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노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복지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노 회장의 기자회견은 협상단 대표로 나선 임수흠(서울시의사회 회장) 단장과의 소통 부재로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협 회장이 협상단의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꼴.

더욱이 의협 역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의발협에 참여했던 터라 의발협 논의 자체에 의문과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의료계 안팎의 시선도 곱지 않다.

결국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 결과와 다른 길을 선택했고 현재 그 길을 가기 위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스스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지구를 현장 방문해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도시주거 재생사업 나선다

서울시, 생활권 통합관리 1조 투입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통합 주거 관리를 골자로 한 주거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재생기구를 신설하고, 4년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했다. 시가 공개한 도시주거재생 비전은 해당 구역의 물리적 정비에 초점을 맞췄던 뉴타운 재개발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정체성 보존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재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뉴타운 등 정비구역이 해당 구역 단위로만 추진돼 지역 발전과 연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 진단을 거쳐 도시주거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 인프라와 공원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확충 역시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도와 밀도 등 물리적 요건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역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건과 주민 동의율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주거재생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앞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높이며 물리·사회·경제적 통합 재생을 이루는 것이 서울의 도시주거재생 비전"이라며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희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정몽준 "출마하겠다"…2일 선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며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출마 선언 장소와 관련해 "서울 시민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한다"며 "일반 시민과 내가 잘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출마가 예상되는 김황식 전 총리와 이미 출마 선언을 밝힌 이혜훈 최고위원의 삼파전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뮤지컬 관람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한 극장에서 대학 신입생 등 100여명과 함께 창작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시간 단축 法시행 2년 유예

정부·여당 의견 접근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 통과 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 의견이 모이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현재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년 유예기간을 둔 새누리당 이완영·김성태 의원의 안과 개정 즉시 적용하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안, 단계별 적용 계획을 담은 정부의 안이 함께 논의돼왔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개정 논의는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에서 4월 15일까지 논의한다. 정부가 2년가량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이 된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김한길·안철수 회동…기초공천 논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사진 왼쪽)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27일 회동을 갖고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후 4시 안 의원이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만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영수회담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안 의원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 대표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오른쪽) 대표와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천개혁, 국민중심 공천제 실현을 위한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며 "(다만) 신당의 당의 모습을 갖춘 뒤 당 대 당으로 회동 제안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한국 알리기가 평생의 業 됐죠"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18년 열정

최근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강단자위권 문제 등과 관련해 도를 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경화 질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일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1절을 앞두고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40·사진) 성신여대 교수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서 교수는 오는 ○주년 3·1절을 맞아 "다시 되새겨 보고, 잘못된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며 5년 후 또 같은 100주년을 위해 '한국 알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손진영기자 son@

◆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는 계속"

18년 전 서 교수가 한국 홍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간단했다. "얼굴만 봐도 딱 오리지널 토종 한국인인데 해외에 나가면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물어보는 이들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없어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알리기 시작했고, 평생의 업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 홍보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2005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Dokdo is Korean territory)'라는 광고가 발판이 됐다. 이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아리랑 광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독도와 비빔밥에 이은 막걸리 광고까지 모두 서 교수의 작품이다.

그는 20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1탄으로 안중근 손도장 대형 걸개 그림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안중근 손도장 걸개 그림을 미얀마,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 대형 건물에 전시하는 월드투어를 준비 중이에요. 대형 걸개 그림은 시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해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 '테러리스트'라고 칭했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사형 판결을 받은 안중 어리고 명언한 아베 총리의 오만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전시를 기획했다.

조만간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2탄으로 '성웅 이순신'을 시작한다. 대형 천 위에 국내외 많은 시민들과 '난중일기' 내용을 붓으로 써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형상화한 후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 대형 건물에 전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배우 최민식씨가 흔쾌히 동참했다. 일본인으로서 이순신 임진왜란, '난중일기' 등을 꾸준히 연구한 기타지마 만지 전 일본 공립여자대학 교수도 함께해 의미가 있다.

"지난해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이순신 장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가 지켜야죠."

◆ "바로 알아야 역사왜곡 막아"

이렇다 보니 일본 극우세력으로부터 협박도 종종 있다. "그때마다 더욱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를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의 망언에 대해 무시하는 것도 전략이다. 너무 감정적으로 듣고 일어나면 그들이 더 신나 하는 것 같다. 때로는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왜 한국 땅이냐고 물으면 논리적으로 답을 못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며 "다케시마의 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1절을 맞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즐기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올해 95주년을 기념해 잘못된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고, 100주년에는 더 큰 이벤트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범 운영

서울 동작구는 26일 화장실 냄새와 비위생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휴지통을 점차 없애기로 하고 관내 공중화장실 3곳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남녀 화장실 변기 칸 내부의 휴지통을 치우고 사용한 두루마리 휴지는 변기에 그대로 버리도록 했다.

대신 여자화장실에는 여성용품을 버릴 수 있는 '에티켓통'을, 세면대에는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비치했다.

구는 화장실 휴지통을 치우면 종량제봉투 구매 비용이 줄고 청소 인력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송파구도 관내 공공화장실을 모두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미방위 법안소위 열려 4개월째 '입법 제로'를 기록하는 등 파행을 겪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정상화됐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통역안내사 100명 양성

부산시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화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100여 명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중국어 관광통역 전문인력 모집에 이어 이번에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언어권을 확대해 내달 2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시민(해당 언어 능력 중상급 이상)과 해당 언어 결혼이민자(한국어 능력 고급 이상) 중 올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본격화

시 6억8000만원 들여 추진…컨설팅단 운영도

부산시가 주민제안형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마을만들기 추진 체계 및 제도·기반 구축 ▲마을만들기 아카데미운영 ▲마을공동체 기업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사기 진작·확장 도모 등 17개 지원시책 16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만들기 통합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는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스스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유 공모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정 공모(자부담 10%) 2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 마을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 건강관리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진단·처방·치유·관리 4단계로 추진되며 마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을 건강 로드맵을 도입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기반 형성과 함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마을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email]@metroseoul.co.kr

부산어시장 위판 실적 절반 '뚝'

날씨 안좋아 조업 부진

올해 들어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탁 판매 실적이 지난해 실적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등어 같은 어시장 주력 어종이 많이 잡히는 시기지만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 조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26일 어시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의 위판 실적은 2만3천803t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4만3764t)에 비해 46% 줄어든 수치다. 위판량이 줄면서 위판 금액도 29% 떨어졌다. 지난해 734억3100만원이었던 위판 실적이 올해엔 522억5600만원으로 줄어졌다. 어획량이 크게 줄었지만 방사능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소비량은 회복됐기 때문에 단가는 31% 상승했다.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어시장 주력 어종인 고등어 위판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어시장에서 위판된 고등어는 7501t으로 지난해 위판량(2만477t)의 37% 수준에 그쳤다.

위판 실적도 반 토막 났다. 작년 302억9900만원이었던 위판 금액이 148억3600만원으로 급감했다.

삼치와 전갱이, 가자미도 위판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60% 급감했다. 위판량이 늘어난 것은 오징어(2.8배), 갈치(2배)뿐이다.

어시장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방사능 걱정은 누그러진 반면 기상 악화 때문에 조업 실적이 부진해 어시장 위판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라며 "바다 날씨가 좋아지고 조업이 본격화되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요집회 어린 응원 26일 오후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어린이들이 할머니들을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도 위안부 피해자 추모 '소녀상' 건립

가칭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부산시청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을 부산에 건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 부산항에서 타지로 떠나면서 흘렸을 그 눈물을 되새겨 보자는 의미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김영섭 부경대 총장, 김문숙 부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장, 인경아 광복회 부산지지부장, 송영명 여성회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민간 모금과 부산시비 보조를 통해 2억원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뒤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건립 위치는 후보 지역을 선정한 뒤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소녀상), 거제시(소녀상), 하동군(추모비), 통영시(추모비) 등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부정에 맞서 소녀상과 추모비를 건립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농산물 0.6%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팔리는 농산물 등 총 4292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 깻잎·참나물 등 15품목 26건(0.6%)에서 프로시미돈 등 농약 15종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주로 엽채류 및 엽경채류로, 깻잎과 참나물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추와 부추 각 3건, 쑥갓 2건, 근대 등 10품목에서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 성분은 프로시미돈(Procymidone),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다이아지논(Diazinon),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다.

농산물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 기관에 의뢰했다. /뉴시스

국비지원 마케팅 강좌

부산마케팅아카데미는 다음달부터 부산지역 기업 및 기관들의 매출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실전 마케팅 강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평일 저녁 시간대뿐 아니라 평일 낮, 주말반 강좌를 추가로 개설한다.

대상 강좌는 ▲모바일 마케팅 과정 ▲내 제품이 신문에 사진기사로 나오는 마케팅 PR ▲비영리기관 마케팅 과정 ▲온라인 마케팅 전문과정 ▲마케터 입문 과정 등 5가지 과정이다.

본 강좌는 고용노동부의 환급 과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busanmk.org) 또는 전화(051-909-3278)로 하면 된다. /정하균기자

'부경 3·1 운동 효시'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현

동구 내일 기념행사

부산 동구는 일신여학교의 만세운동을 기리고 박재혁 의사, 최천택, 박차정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부산의 종가로서 자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8일 구청 광장에서 3·1운동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초청 내빈,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에서는 광복회 안경하 부산지부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유공자 유족회 권혁초씨가 만세 삼창 선창을 한다.

지난해 개최된 3·1절 기념행사 모습 /동구청 제공

이어 2부 문화행사에서는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을 연극으로 재현하며 53사단 군악대, 여성취타대, 풍물단, KT&G상상유니브 태극댄스와 동구의 독립운동가 사진 전시회도 준비돼 있다.

공연이 끝난 뒤 3부 행사에서는 지역 내 고등학생 등 주민 200여 명이 동구청 광장에서 동부경찰서와 좌천동 가구거리를 거쳐 일신여학교까지 행진하는 독립의 길 걷기 행사도 진행한다.

동래여고의 전신인 일신여학교는 호주 선교단에 의해 좌천동에 설립, 여성 교육 신기원을 이룩하는 데 발판이 된 학교로서 부산·경남 3·1 운동의 첫 봉화를 당겼으며 이후 각 지역 만세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이 됐다.

구 관계자는 "1919년 3월 11일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된 3월 독립 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벤처 구심점 역할 온힘"

김경조 벤처기업협회장 만장일치 연임 - 사상구 모라동에 '타워' 건립도

부산벤처타워 조감도.

사)부산벤처기업협회(회장 김경조·사진)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명칭을 버리고 부산벤처기업협회로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김경조(경성산업대표) 협회장은 회원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 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을 위해 이번 임기를 포함해 총 5년간 협회를 위해 일하게 된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06년 12월 창립해 지역 벤처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언·금·관에 대한 허브(Hub) 역할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며, 200여 개 벤처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지역의 유력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지식산업센터인 부산벤처타워 건립을 사상구 모라동에 추진 중이다.

부산벤처타워는 서부산의 중심인 사상구 공업지역 내 1만1101㎡(3358평) 부지에 지하2층~지상 17층, 연면적 5만4000㎡ 규모로 건설된다.

3월경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해 2016년 1월경에 100여 개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평균 상주인구 1500여 명을 기준으로 단체 급식, 헬스센터, 육아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기업 혁신을 위한 석·박사 중심의 연구·개발(R&D) 인력을 비롯한 우수 인재들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회장 취임사에서 "부산벤처타워 건축을 계기로 부산벤처기업협회는 지역 2000여 개 벤처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벤처타워는 지역 R&D 사업의 거점 지역으로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지역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하균기자 info@metroseoul.co.kr

"가덕도 신공항 유치할 것"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 출마 선언

"부산시장직을 걸고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병수(사진) 의원이 26일 신공항 후보지가 바라다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새바지항 선창가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발표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신공항 유치를 통해 낙동강 시대를 활짝 열어 임기 중 첫 삽을 뜨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서 의원은 이어 "부산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한 이면에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당선되면 매년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신공항이 들어서면 바다와 낙동강을 잇는 서부산권이 미래 첨단산업과 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강변도시로 거듭나게 된다"면서 "신공항 유치로 인한 전후방 효과로 자연스럽게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 미래상의 핵심이 바로 신공항 유치"라면서 "현재의 신항만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길까지 연계돼 위대한 부산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위대한 부산 시대를 열기 위해 ▲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 회복 ▲도시 매력의 원천인 문화와 도시 발전의 토대인 창의력 계발 ▲시민 개개인의 상상력을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개혁 추진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하균기자

웅산·손성제·조윤성 … '듀오 프로젝트'

내달 14일부터 LIG아트홀

LIG문화재단의 시즌 첫 기획 공연인 '듀오 프로젝트'가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LIG아트홀에서 펼쳐진다.

26일 LIG문화재단 측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세 명의 전방위 재즈 뮤지션 웅산, 손성제, 조윤성이 음악적 '듀오'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꾸미는 특별한 무대다.

첫 무대는 재즈 뮤지션뿐만 아니라 클래식 연주자, 대중가수, 컴퍼니 가수 등과의 활발한 듀오 공연과 앨범을 선보여온 피아니스트 조윤성이, 보컬리스트 임경은과 함께 다시 한 번 경계 없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어 15일에는 즉흥 재즈부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까지 음악적 반경을 확장해온 색소포니스트 손성제가 두 명의 음악적 동지인 피아니스트 배장은, 드러머 송준영과 어뱌이 가득한 동양화 같은 즉흥 연주를 펼친다.

마지막 16일에는 보컬리스트 웅산이 자신의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 기타리스트 지로 요시다,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함께 그녀의 국내 첫 듀오 무대를 선보인다.

(예매 인터파크 티켓 3만원) 문의 1544-3922

/정하균기자

봄비 머금은 매화꽃 26일 남부지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가운데 부산 연제구 법원 청사 주변에 매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트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108명 채용

부산시교육청은 2014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26일 공고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 100명, 시설·공업(건축, 일반토목, 일반기계) 5명, 특성화고 졸업생(졸업 예정 포함) 3명 등 총 108명이다.

이번 임용시험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해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고졸자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 시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졸업 예정 포함)을 대상으로 시설 공업직렬 일반직공무원 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하고 장애인 고용과 저소득층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별도 구분 모집으로 교육행정직렬에 장애인 6명, 저소득 2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2~16일이며 6월 21일 필기시험과 7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5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시험 방법, 응시 자격, 가산 특전 등 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지역 명소 관광자원화 추진

한여름 스치듯 흩날리어 몽환적인 배경을 연출하는 회동수원지 물안개가 부산의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이처럼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를 방문해야만 맛보거나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산판의 명소'가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

부산시는 '그 순간, 그 장면' 부산 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에서 가볼 만한 테마의 명소를 비달 선정, 선정된 장소에서 미션을 부여하고 미션을 수행한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광지, 체험 장소, 음식 등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관광객의 직접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부산관광명소 이벤트'도 추진한다.

대상은 회동수원지 물안개, 황령산 야경, 영도다리 도개, 광안대교 등이다.

부산시는 4월까지 여행작가, 사진작가, 관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명소 선정 작업을 벌인 뒤 5월부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집 뒤뜰서 금화로또 발견 화제

美 부부 산책중 100억원대 추정

자신의 집 뒤뜰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금화로또'를 맞은 부부가 화제다.

미국 ABC 방송은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에 사는 부부가 뒤뜰에서 5개의 '보물 깡통'을 발견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책 중 우연히 찾아낸 이 깡통에는 1847년부터 1894년 사이 주조된 금화 1427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전 전문가인 던 케이건 박사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토된 전체 금화의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07억2600만원)로 평가된다"며 "1980년 이래 몇천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동전 한두 개를 가져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무더기로 양속이 묻힌 금화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은 정말 확률은 로또복권 맞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에 사는 부부가 발견한 보물 깡통 속 금화. /AP 연합뉴스

금화를 발견한 부부는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국화폐협회의 전시회에 금화 일부를 빌려준 뒤 나중에 90% 이상을 시장에 팔아 지역 공동체의 불우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자 kmkim@

가상화폐 '비트코인' 물거품 되나

기술적 결함 거래 중단 가격 반토막

종이 화폐를 대신할 '미래의 화폐'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가상 화폐 비트코인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는 당분간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마운트곡스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마운트곡스는 기술적 결함으로 이미 고객 인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1000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현재 반 토막 수준인 517.71까지 떨어졌다.

마크 카펠레스 마운트곡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 "우리 사업은 현재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다른 업체와 관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비트코인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고객들은 4억 달러(약 4294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마운트곡스의 유통 비트코인 1244만 개의 약 6%에 달하는 74만4000개가 해킹 도난됐다는 내용의 문건이 온라인상에 나돌고 있다. 마운트곡스는 지난달 고객의 인출은 중단했지만 비트코인 거래는 계속 허용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소문과 의혹이 퍼지면서 일부 고객들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며 도쿄 마운트곡스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통화로서의 가치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신뢰에 달려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마운트곡스 폐쇄를 통해 보안 문제 등 가상 화폐의 단점이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됐다"면서 "세상에 나온 지 5년 만에 비트코인은 존폐의 위기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금화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미기자 sunmi@metroseoul.co.kr

미셸 오바마 "비만퇴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를 방문 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25일(현지시간) 한 요가 센터에서 어린이들과 요가 동작을 따라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아동 비만 퇴치 캠페인 '렛츠 무브' 4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미셸 여사는 지난 2010년 소아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 전국적으로 비만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加, 사냥한 고기를 식당 메뉴로

metro Canada

캐나다 퀘벡주에서 사냥한 고기를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주정부는 최근 일부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사냥한 고기를 고객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노르망 라프리즈 셰프와 마르탱 피카르 셰프가 마침내 주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 이로써 시범 레스토랑들이 사냥을 한 고기들을 메뉴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라프리즈 셰프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버려지는 사냥감들을 줄이겠다는 데에 있다. 연간 2만5000마리의 동물이 사냥으로 죽게되는데 이중 70%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첫 도입은 오는 가을 사냥 시즌에 이뤄지며 레스토랑도 한정된 곳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퀘벡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냥 및 요리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의 동물군에 대해선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오드리 탁보아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너무 야해서"…월드컵 티셔츠 판매 중단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브라질 월드컵을 겨냥해 야심차게 선보인 티셔츠(사진)의 판매가 중단됐다. 너무 외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관광청은 티셔츠에 사용된 문구가 외설스러워 '섹스 투어'를 조장한다며 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논란이 된 티셔츠는 '득점 장면을 보세요(LOOKIN TO SCORE)'라는 문구 아래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축구공을 든 모습을 그린 것과 '브라질을 사랑해요(I ♥ BRAZIL)'라는 글귀를 넣은 것 등 두 가지다.

'스코어(SCORE)'라는 영어 단어는 마약상들의 은어로 '마약을 얻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 'I ♥ BRAZIL'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티셔츠는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등 선정적인 연출로 비난을 받았다.

브라질 관광청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티셔츠가 브라질 월드컵 기간 중 관광객에게 매춘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전쟁 역사 주제 '철의 장막 전시회'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주제로 한 '철의 장막' 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조형물은 4m 높이의 대형 철제 구조물에 못과 쇠사슬을 이어 만든 철의 장막이다.

관람객들은 철의 장막에 직접 들어가 작품을 만져보고 장막 속을 통과해볼 수도 있다.

한 관람객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금속의 차가움을 직접 만지고 느껴보면서 전쟁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전시회"라며 "아이들의 교육 효과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큐레이터 안드레이 하르쉬코프는 "이 작품은 냉전의 아픔과 공포를 얘기하고 있다"며 "미적 아름다움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또 전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슬라프 쉬레인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아시아나 美서 50만달러 벌금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서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 희생자 가족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현지시간)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에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것을 항공사의 의무로 규정한 미국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첫 사례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희생자 가족은 사고 후 이틀이 지나도록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는 무려 5일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코스닥
1970.77 (+6.91)	529.23 (+0.62)

금리	환율
2.86 (변동 없음)	1068.50 (-6.50)

뉴스&뉴스

롯데百 웨딩 페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남성매장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남성 예복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2일까지 '웨딩 페어'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소비자 심리 5달째 ↓

● 소비자심리지수(CSI)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CSI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105→102) 이후 처음이다. CSI는 10월 106을 거쳐 지난 1월에는 35개월 만의 최고치인 109로 올랐다. CSI는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100 아래면 그 반대다. /김민지기자

산업대출 4분기 연속증가

● 지난해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전분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2조5000억원 줄었다. /김민지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송월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 인 · 대표	당 균 호
사장 · 편집인	김 광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명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 자 센 터	(02)721-9866

세계 부동산 재벌 중국인이 7명

세계 10대 부동산 재벌 중 7명이 중국 부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연구소가 발표한 '2014 세계 10대 부동산 재벌 순위'에 따르면 홍콩 리카싱 청쿵 부동산그룹 회장이 자산 33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왕젠린 완다 그룹 회장이 250억 달러로 2위에 올랐으며 리쇼키 헨더슨 부동산그룹 회장(210억 달러)과 로버트 쿽 샹그릴라 호텔그룹 회장(160억 달러)이 각각 3, 4위에 올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자산 10억 달러가 넘는 부호는 1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아시아계는 824명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계 부호는 전년보다 108명이나 늘어 457명에 달해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박국림기자 kmkoo@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맡겨주세요"

금융기관, 대출 쉽게·· 예금 이자 높게···경쟁

주요 은행들이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새내기들에게 재테크는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꿰느냐에 따라 내 자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상품마다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하게 따져 선택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취업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신입직원을 위한 '주니어 패밀리론'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지정한 업체의 입사 최종 합격자 및 입사 후 3년차까지의 신입직원 중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의 1~2배 범위 내 최고 1억원까지다. 특히 입사 초기에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감안해 기본 대출 한도 2000만원(우량 업체인 경우 30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상환 방식과 대출 기간은 만기 일시상환(통장대출 포함)은 1년 이내로 최초 대출 기간 포함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KB Star*t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만 18~35세가 가입하는 전용 상품이다. 가입자 나이가 만 38세가 되면 다음해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또는 KB종합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공과금 자동 납부나 계좌 자동이체, 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현금인출기(ATM) 출금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준다. 2개월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잔액 100만원에 대해 연 2.5% 금리를 준다.

외환은행의 '빙고 직장인 우대통장'은 2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잔액별로 우대금리를 자동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결산기 평균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 미만까지는 연 2.5%,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까지는 연 1.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선 기본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월세 임대료 10%까지 세금서 깎아준다 정부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26일 서울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월세 세제혜택 크게 늘어난다

10% 공제··· 대상도 확대

월세 세제혜택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 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 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돼 수혜폭이 커졌다.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규모 임대소득자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도 허용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 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지출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세금 혜택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2.8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연 소득 4500만원(적용 세율 15%)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경우에도 그동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후 54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10% 세액공제로 60만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경정 청구 등 보완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유주영기자 boa@

팬택 워크아웃 승인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관련 은행권 충당금 적립이 예상되고 익스포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팬택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대비해왔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팬택이 26개월 만에 또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음주 채권단과 협의를 시작하고 이르면 3월부터 정상화 방안에 들어갈 방침이다. 채권단은 정상화를 위해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워크아웃이 개시될 경우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 은행들은 추정 손실에 준하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팬택과 관련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은행은 매출채권 812억원의 우리은행이 31.4%로 가장 높다. 184억원인 신한은행이 18.4%로 뒤를 이었고 대구은행 151억원 15.1%, 하나은행 130억원 13%, 국민은행 100억원 10.9% 등이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정원기자 pjw@

정부 '해킹 방위대' 띄운다

인터넷진흥원, 다음달 중순 300명 전발 '사이버보안전문단' 발족

금융 사이트 등의 해킹을 막는 민간 전문가 300명이 양성된다.

학계 출신의 비현실적 이론가가 아닌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수들이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셈이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중순 사이버 보안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보안전문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립되는 사이버보안전문단은 정보보호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정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기술·관리 분야 조치 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자 등으로 꾸려진다.

미래부는 신청자 400여 명 가운데 비상 상황 발생 시 단기간 전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 조만간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전문단은 신종 사이버 금융사기, 소프트웨어(SW), 웹, 모바일, 데이터 복원 작업(포렌식), 지능형지속보안위협(APT) 등 분과로 나뉜다.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버보안전문단원 중 일부 단원은 공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사이버보안전문단원은 민간인이지만 참여시고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이웃 국가인 중국과 북한도 우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된 사이버 부대다. 이들은 비정기적으로 북미나 유럽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에 관해서는 손에 꼽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힌 이른바 '3·20' 사이버테러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며 북한 정부가 이미 1만명 이상의 해커 집단을 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한글 우산, 비오는 날의 작품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서울국제 관촉물, 선물 및 홈웨어전'에서 관계자들이 주문받은 글자를 새겨넣어 디자인한 한글 우산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유일호 의원 "공공 개혁" 강조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를 이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뤄나가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공공부문의 강력한 개혁을 시사해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여당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힌 유 의원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잠재성장률 4% 수준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고용률 70%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첫 손에 꼽았다.

그는 "공공 부문에 공공성과 독점적 위치로 경쟁이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공공 부문의 비효율화를 바로잡는 만연하도 한 방법인데 특히 표준 의식하는 여야 정치권의 영향으로 이를 실현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최근 불거진 KTX 노조 파업 등 공공 부문 정상화에 대해 정부·여당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혁신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보 부족으로 신시장 개척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연식기자 kosdf@

25일 LG서 한마당 행사에서 구본무(왼쪽) LG 회장이 '일등LG상'을 수상한 LG유플러스 100% LTE 팀 김도진 부장에게 상패를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LG 제공

"호기심·섬세함, 혁신의 시작"

구본무 회장 'LG혁신한마당'서 시장 선도 주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고객의 작은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함이 혁신의 시작이다."

구본무 LG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LG혁신한마당'에서 "기존에 성공했던 방법을 고집하거나 현재 일하는 방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과 정성을 다해야 남다른 상품이 나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가 바로 혁신의 중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 선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구본무 LG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이희범 LG상사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 30여 명을 포함해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LG혁신한마당에서는 LG유플러스 '100% LTE'가 '일등LG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G2 ▲LG디스플레이 고해상도·광시야각(AH-IPS) 보더리스 모니터용 LCD 모듈 ▲LG화학 스텝트 배터리 등 12개 사업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LG유플러스 100% LTE는 데이터·음성·문자를 모두 LTE로 제공해 HD급 음성통화와 통화 중에도 게임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LTE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LG유플러스가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는 동력이 됐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2는 인체공학적 후면 키와 터치만으로 화면을 켤 수 있는 노크온(KnockOn) 등 직관적인 사용자경험(UX)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에 기여했다.

LG디스플레이 고해상도·광시야각 보더리스 모니터용 LCD 모듈은 모니터 테두리를 업계 최고 수준인 3.5mm까지 줄여 세계 모니터용 LCD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하는 데 힘을 보탰다.

LG화학의 스텝트 배터리는 스마트 기기 내부의 빈 공간을 활용해 여러 개의 배터리를 일체형으로 쌓아 배터리 용량 확대의 한계를 극복했다.

/김태균기자 ksuh@

이맹희씨 상고 포기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 소송 1·2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패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과 관련,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고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고 이병철 회장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전 이 전 회장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소외층 모바일 정보화 전체국민의 절반 수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발표한 '2013년도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75.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향상됐다. 반면 미래부가 PC와 모바일 융합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보 격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자세히 정책 지표인 '스마트 격차지수(신정보격차지수)'를 개발해 지난해 시범 산출한 결과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7.5%로 나타났다. /이재영기자 ry0405@

디딤돌 대출 11조 지원

최대 12만 가구 혜택

정부가 주택 임대 시장 선진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을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도 6조4000억원 지원한다.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전세기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 호의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방식으로 바꾼다.

또 임대 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풀어주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박선옥기자

반도건설·IS동서 "형제였어?"

양사 오너 일곱째-막내로 태어나 '자수성가' 사내 문화는 극과 극

오너가 형제 사이인 반도건설과 IS동서가 서로 다른 사내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 회사 모두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사지만 반도건설은 비교적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반면 IS동서는 그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은 IS동서 권혁운 회장의 친형이다. 경북 의성이 고향인 이들 형제는 8남매 중 각각 일곱째와 막내로 태어났다. 같은 업계에서 2·3세 경영인이 아닌, 오너가 형제 사이이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권씨 형제는 경남·부산지역 업체를 전국구로 키운 것은 물론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도 꾸준한 시공순위 상승을 이루는 등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두 회사의 문화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직원들의 활약상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전언이다. 반도건설에는 현재 디자인팀장 1명을 제외하고는 팀장급 이상 여직원이 전혀 없다. 1명뿐인 여자 팀장마저 권홍사 회장의 둘째 딸인 권보영 팀장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여직원 중에서는 과장급이 몇몇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이라는 특성상 여직원 비율이 낮기도 하지만 반도건설이 보수적이라 여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반해 IS동서는 권혁운 회장의 장녀인 권지애 마케팅실장(상무) 외에도 여자 임원과 팀장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또 IS동서의 계열사이자 권 상무가 대표가 있는 삼홍테크의 경우에는 국내외 영업은 물론 관리·설계 등 다양한 부서에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IS동서 관계자는 "성별 관계없이 3-4, 4-4에 따라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의 과정을 거친다"며 "아무래도 여성 임원이 있다 보니 여직원에 대한 선입견 없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건설업종이라도 두 회사가 하는 일이 다른 만큼, 여직원의 활약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업체 모두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반도건설은 IS동서에 비해 현장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직원 수요가 많지 않고, 자연스럽게 승진하는 여직원 수도 적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선옥기자 mso8120@metroseoul.co.kr

다음달 전국 2만5000가구 신규분양

다음달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26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37개 단지 2만5443가구다. 전년 동기 1만7263가구와 비교해 47.4%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4개 단지, 7494가구 ▲지방광역시 8개 단지, 4831가구 ▲지방 15개 단지, 1만1118가구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권 물량이 눈에 띈다. 대림산업이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해 '아크로힐스 논현' 368가구(일반분양 57가구)를 분양하고,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를 공급한다.

/박선옥기자

재생지로 만든 사무용품들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서울국제 문구류·선물 및 홍보이벤트 예시'에서 관계자들이 재생지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사무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배타적사용권 취득 ELS 인기비결 눈길

한투증권 '2in1 스텝다운' 높은 조기상환 확률 자랑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가연계증권(ELS) 중 판매성과가 좋은 상품의 비결은 종전보다 높은 조기 상환 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5개 ELS의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의 '2in1 스텝다운 ELS'가 2013년 8월부터 3개월간 1529억원의 발행액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 ELS'가 2013년 3월부터 4개월간 316억원을, 삼성증권의 '롱숏 스프레드 ELS'가 같은 해 9월부터 4개월간 226억원의 발행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 밖에 교보증권의 '일일손익확정형 ELS'는 2013년 1월 말부터 3개월간 12억원에 그쳤다. 신한금융투자의 '브윈스'의 경우 같은 해 12월 말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오는 3월까지 권한이 유효한 가운데 현재까지 3억원을 발행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판매 실적이 좋은 배타적 사용권 ELS는 기존 상품보다 조기 상환 가능성을 높게 설계한 점에 점수를 줬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한투의 2in1 스텝다운 ELS 상품은 종전 스텝다운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 1개가 아닌 2개의 가격 변화율이 상환 조건을 충족해도록 해 조기 상환 확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롱숏 스프레드 ELS 역시 바스켓 안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좋은 종목과 낮은 종목의 평균수익률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정 기초자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자산의 주가를 평균 낸 값을 상환 기준으로 삼아 리스크를 분산하고 조기 상환 확률을 높인 것이다.

상품 설계의 구조가 시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도 관건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킹크랩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지수의 상·하단에 조기 상환 조건과 녹인 배리어(원금 손실 상환 기준 가격)를 설정했다"며 "이는 횡보 장세에서 유리한 구조로 최근처럼 변동폭이 큰 장세를 겨냥한 상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okim1@

사무실로 맥주 배달이요

글로벌 이코노미

영국업체 금요일마다 행사 직장인들에게 폭발적 인기 양조장서 만든 수제만 판매

"매주 금요일 오후 사무실로 맥주 배달해드립니다."

많은 직장인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으레 동료들과 술잔으로 향한다. 한 주간 쌓인 피로를 시원한 맥주 한잔과 함께 날리는 일은 빠질 수 없는 '주간 행사'다. 이들을 위해 아예 맥주를 사무실 책상으로 배달해주겠다고 나선 업체가 있다.

영국 런던에서 사무실로 맥주를 배달하는 업체 '데스크 비어'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N 머니 등 외신이 최근 전했다.

이 업체는 일반 캔맥주가 아니라 런던의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 맥주만 판매한다. 갓 제조한 신선한 맥주를 병에 담아 사무실로 바로 배달하는 것이다.

데스크 비어의 스티브 마샬 대표는 "나른한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 직장인의 '절친'인 맥주를 들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두 환호한다"면서 "데스크 비어는 다른 술집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수제 맥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나한 데스

그는 맥주를 금요일을 제외한 주중 다른 날에 판매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매일 저녁 사무실로 맥주를 배달해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은 술을 권해도 괜찮은 날이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에 사무실로 맥주를 배달해달라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사무실로 맛있는 맥주가 배달된다면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다"면서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으면 동료들과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허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데스크 비어는 배달비를 포함해 맥주 1병을 약 5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세탁용 향기지속제 '다우니 아로마 쥬얼' 한국 피앤지의 다우니가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림아트센터 제이콘비 갤러리에서 세탁용 향기지속제 '다우니 아로마 쥬얼'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지족' 게임보단 쇼핑

스마트폰 '검지족'들이 게임보다는 쇼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조사기업 랭키닷컴은 올 1월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게임 이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쇼핑 앱 이용자 수가 2163만 명으로 카카오 게임보다 270만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쇼핑 앱 이용자 수를 700만 명이나 앞섰던 카카오 게임이 1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모바일 앱 성장률 1위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선정되는 등 쇼핑 앱 이용자의 저변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형선 랭키닷컴 팀장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모바일에서 오픈마켓 트래픽을 앞서가 시작하면서 쇼핑 업계 전반의 모바일 경쟁이 심화됐다"며 "많은 업체들이 구폰 제공과 같은 내부 이벤트뿐 아니라 인기 게임 아이템, 메신저 스티커 제공 등 모바일 이용자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다양하게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국현기자 knlee@

매출 5억미만 앱 수수료 면제

네이버 상생방안 마련

포털 네이버가 중소 앱 개발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26일 내놓았다.

이번 상생 방안으로는 ▲모바일 메인에 앱·게임판 별도 신설 ▲누적 매출 5억원 미만의 경우 수수료 부과 없는 채널링 수수료 정책 조정 ▲N클라우드 서버 지원 등 채널링 혜택 강화 ▲게임인 재단과 제휴를 통한 베타존(가칭) 서비스 및 선불 카드 제작 지원 등이다.

우선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앱·게임판을 신설해 이용자와 중소 앱 개발사 간 접점을 확대한다. 앱·게임판의 우수 앱 추천 코너, 양질의 리뷰 등을 통해 다양한 앱을 이용자에게 간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일반 앱과는 달리 채널링 수수료가 부과되던 모바일게임의 경우에도 중소 개발사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에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우선 누적 5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채널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누적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게임에 한해서만 7%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출의 10%를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돌려주는 앱스토어의 기존 수익 배분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네이버 채널링 서비스 혜택도 강화돼 네이버 로그인 기능, 마일리지 지원 등 기존 채널링 서비스 외 N클라우드 서버를 신규로 지원한다. 게임 앱의 경우 전문가들 초빙해 게임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설훈기자 [illegible]

레벨테스트 신청하고 전화영어 할인 받고

YBM시사폰 이벤트

YBM시사폰이 영어 스피킹 완전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간과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강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YBM시사폰 홈페이지(www.sisaphone.com)에 접속해 다음달말까지 무료 레벨테스트를 신청하고, 당일 수강 신청하면 전화 영어를 3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할 수 있다.

전화 영어는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영역별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일대일 맞춤 학습 플랜을 제시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발음, 어휘력, 표현력, 문법, 의사소통 능력 등의 부족한 영역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이국현기자

디즈니 월드 잉글리쉬 론칭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인 미키·미니마우스에게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프리미엄 영유아 영어 전문기업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는 26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즈니 월드 잉글리쉬'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월드패밀리잉글리쉬가 제공하는 디즈니 월드 잉글리쉬는 영유아 영어 교재로서 올 2월 현재 아시아 4개국에 8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디즈니 캐릭터와 디즈니 콘텐츠를 이용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국현기자

구직자 10명 중 6명 상반기 취업 자신없어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상반기 취업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올 상반기 공채를 준비 중인 사시 회원 652명을 대상으로 '취업 불안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의 56.9%는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자신 있다'는 답변은 6.1%에 그쳤다.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스펙(38%)으로 집계됐다. 이어 '막연한 불안감'(22.5%), '높은 경쟁률'(19.5%)이 거론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규제총량제 사각지대의 '그림자 규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구두지도·권고·지침… 전경련 사례 발표

A 보험사는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 민원 감축지수를 만들고, 강도 높은 이행 점검을 실시해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규제총량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규제 수나 규제로 인한 비용의 상한을 정하고, 규제 신설 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규제 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그림자 규제)'는 규제로 등록·관리되지 않아 규제총량제를 도입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속칭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이런 규제는 실제로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로 법적 근거 없이 행사되는 행정(공공)기관의 암묵적 권력 행위를 뜻한다. 구두지도·행정지도, 권고·지침, 적합 업종, 기부채납, 조세 등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금감원은 보험 민원을 2년 내 50% 감축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지만, 보험업 현실과 괴리된 무리한 목표라는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민원감축지수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만들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표준안 이지만 금감원에서 매 분기 민원 감축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미이행 시 경영진 면담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의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손해율 상승,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관행적인 구두지도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 반면 공정위는 금감원의 보험료 인상 지침에 따른 보험사를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하기도 한다. 금감원의 지도에 따랐지만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도 나타난다. 법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고유 업종과 달리 적합 업종은 '민간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정부는 자율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동반위는 적합 업종 권고 미이행 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기청이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는 인허가 처리 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7개 지자체에서 40건의 부당 인허가 거부·지연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구청장의 지시로 불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 역시 사업 승인을 담보로 요구되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기부채납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업 승인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송태종기자 kszio@metroseoul.co.kr

미방위, 단말기 유통법 'OK'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상임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국회 미방위는 지난 1월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한 후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회동을 갖고 정상화에 합의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규제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방위는 당초 단말기 유통법에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이를 전체 제조사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최근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혼잡해진 통신시장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등 입법을 통한 유통질서 없이는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이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오후 법사위는 삼성특검 논란 속에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며 파행 중이다. /이재영기자 ljy@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내 일 탐색전' 2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에서 열린 '서울 청년 뉴딜일자리박람회 내~일 탐색전'에서 구직자들이 직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되레 증가

비정규직을 줄이자는 사회 전반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26일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에 비해 증가했다.

강원랜드는 전체 직원 수가 3184명에서 3648명으로 14.5% 늘었는데 비정규직 수는 203명에서 567명으로 180% 급증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도 6.3%에서 15.5%로 급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역시 전 직원 764명 가운데 85명(11.1%, 올해 수습사원 제외)이 비정규직으로 2012년 말 8.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 전체 직원은 311명에서 309명으로 줄었는데 비정규직 수는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한편 현재 직원 100명 이상의 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전체 직원 711명 가운데 343명(48.2%)이 비정규직이다. /유명기자 kmlee@

삼성전자 MWC서 '녹스 2.0' 공개

삼성전자가 더욱 강력한 성능에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 2.0'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5일(현지시간) '삼성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해 녹스의 진화와 지속적인 혁신 의지를 밝혔다.

신종균 사장이 25일(현지시간) MWC 행사에서 녹스 2.0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녹스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보안 플랫폼으로 지난해 MWC에서 첫 공개 이후 10월 시장에 출시됐다.

녹스 2.0은 공인인증서와 같은 사용자 인증 정보와 각종 암호화 키 정보를 하드웨어 칩셋에 구현한 '트러스트 존'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스마트 기기의 분실이나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개인 암호뿐 아니라 지문인식을 통한 이중 인증 방식을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스마트 기기의 커널 코드의 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녹스 2.0은 올해 2분기에 상용화될 예정이며,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에 기본 탑재된다. /김나리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진주고 '우정학사' 기증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25일 경남 진주시 진주고등학교에 다목적 기숙사인 '우정학사'를 준공,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희 진주시장,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이중길 전 국가보훈처장, 정명규 진주고등학교장 및 교사,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 붙인 우정학사는 연면적 1332㎡,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립됐다. 4인용 기숙사 28실과 독서실, 샤워장 등의 다양한 학습 및 편의시설을 갖췄다. /박선옥기자 psoo92@

<모바일>

M메신저 "미니홈피 될래"

미니홈피를 품은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가 종합 개인 커뮤니티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당초 무료 문자 개념으로 시작된 모바일 메시지지만 게임에 이어 개인 블로그와 음악 살롱 등의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국내 양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와 라인은 2000년대를 풍미한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미니룸, 미니미, 배경음악과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소셜 음악 서비스 '카카오 뮤직'의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 연동을 이번달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용자는 카카오 뮤직에서 구입한 음악을 카카오톡 프로필과 카카오 스토리에 적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가 내 프로필에 설정된 음악 이미지를 터치하면 나만의 뮤직룸으로 이동해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인들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라인은 아바타 커뮤니티 '라인 플레이'의 한국어 버전을 지난 24일 출시했다. 라인 플레이는 미니홈피를 꾸미는 방식과 비슷하다. 가상의 공간과 아바타를 꾸미고 일기를 작성하며 교류하는 이 커뮤니티는 2012년 11월 일본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 전 세계 14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한편 2004년 등장한 모바일 미니홈피의 원조 WAP 네이트 모바일 싸이월드는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피처폰 이용자 감소가 큰 원인이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12년 9월 스마트폰용 싸이월드 앱 3.0을 출시했지만 카카오와 라인의 영감 구도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넘사벽' 맥북에어 넘볼 만!

막강 사양에 디자인 깜짝

현존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사려면 많게는 400만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픽이나 디자인 전문직이 아니라면 이 돈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적당히 성능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제품을 사자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론은 애플 '맥북 에어'다.

10대 고교생들도 매를 써 부모님에게 결국 승낙을 받고 마는 '엄마의 노트북'인 것이다.

하지만 '아티브 북9'의 등장으로 판도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이 맥북을 따라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HD(1920×1080) 고해상도 15.6인치 디스플레이, 14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 업계 최초 FLAC 등 무손실 음원 재생, 인체공학 키보드 탑재 등 기본 스펙을 제외하더라도 동급 최고의 상품성은 갖췄다.

이러한 기능 덕에 영화를 관람할 때는 흡사 극장 수준의 환경이 구축돼 음악이는 영화관이 따로 없다.

무엇보다 맥북 에어 부럽지 않은 럭셔리한 외관이 매력적이다.

시리즈9'의 독창적인 에어로 디자인과 유선형 디자인을 계승했고 외부 PC 케이스의 형태를 이음새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깎아서 제작하는 싱글 셸 보디 공법을 적용해 14.5mm의 초슬림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을 동시에 구현했다.

삼성뿐 아니라 글로벌 PC업체들은 모두 맥북 디자인을 넘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2%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삼성은 새 아티브 북9으로 디자인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8GB 온보드 메모리, 윈도8.1운영체제(OS), 128GB SSD, 무게 1.78kg 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급 화려한 스펙은 기본이다. 200만원이라는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삼성이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하면 100만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다.

/박성호기자 [illegible]

한·중·일 로밍 서비스 비교하는 관람객들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4'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이나모바일 부스에서 KT, 차이나모바일 그리고 NTT도코모의 LTE 로밍 서비스를 비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오스 여신 강민경 "새 콘텐츠 설레요"

첫 대규모 업데이트 눈길

"저도 에오스에 푹 빠져있는데 새 콘텐츠가 대거 등장했다고 하니 흥분되네요."

인기 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사진)이 선택한 MMORPG '에오스'가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작했다.

지난해 출시된 에오스는 극소수의 스테디셀러가 지배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여전히 PC방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는 중이다.

NHN블랙픽의 한게임에서 서비스하고 엔비어스가 개발한 에오스는 26일 신규 클래스인 '쉬록'을 포함한 첫 번째 대형 업데이트 '카르딜라'를 공개했다.

3월 13일 업데이트 예정인 카르딜라는 ▲암흑술사 클래스 쉬록 등장 ▲신규 파티던전 '붉은 요새'와 '파괴된 카르딜라' ▲최상위 공격대 던전인 '암흑 성채' ▲신규 전장인 '투쟁의 골짜기'와 '[illegible]/가장' 시스템 오픈 ▲최고 레벨 무한 사냥터 및 모바일 앱 전문 기술 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업데이트의 핵심인 쉬록은 근거리와 원거리 공격이 모두 가능한 암흑술사 클래스다. 전투 시간이 길어질수록 데미지가 큰 공격이 가능하며 적에게 빠르게 접근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특징이 있다.

신규 파티던전인 붉은 요새는 설원 지대 위에 세워진 적기사단의 근거지로 총 3종의 보스를 만날 수 있으며 직전 침투, 장애물 피하기, 적의 공격 무기 무력화 등 긴장감 넘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파괴된 카르딜라는 협곡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거점에 침투,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을 방어하고 주변 장치물을 이용해 다량의 적을 섬멸할 수 있는 던전이다.

이 밖에 최고 레벨 무한 사냥터가 추가되며 에오스 앱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앱에서도 전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포션, 아이템, 요리, 소울, 보석 등을 모바일에서 제작할 수 있다.

/박성호기자 [illegible]

애플 '완벽보안' 뚫렸다

iOS·맥OS 취약성 발견

보안 문제만큼은 '완벽주의'를 자랑해온 애플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운영체제인 iOS와 맥OS에 보안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FireEye)가 아이폰 화면에나 버튼을 누른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기록할 수 있는 감시용 프로그램(앱)을 개발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앱을 이용하면 해커들이 아이폰 이용자가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을 몰래 빼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이폰에서는 그동안 보안 취약성이 발견된 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번 결함 발견은 보안을 강조해온 애플 평판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 같은 주장이 애플이 지난 21일 보안 취약성을 바로잡는 iOS7.0.6 버전 업데이트를 공개한 이후 나왔다"며 "i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맥OS에서도 보안상 결함을 드러냈다. 더넥스트웹 등은 애플이 OS X 매버릭스 10.9.2 버전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e메일 등 다양한 웹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SSL 인증 오류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SSL 인증 오류 때문에 해커들이 맥 컴퓨터 내 e메일,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국현기자 [illegible]

맛있는데 영양까지 듬뿍

블루베리 품은 초콜릿·견과류 씹히는 아이스크림…'컨버전스 식품' 바람

식품업계에서 맛에 영양을 더한 '컨버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서로 다른 군에 속해있던 식품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신종 먹거리로 거듭나고 있는 것. 다양한 식재료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던 제품의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식품의 조합으로 맛과 영양 모두를 챙긴 신개념 제품이 똑똑한 소비자의 입맛을 끌어당기고 있다.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고루 갖춘 신개념 간식 등장

초콜릿·아이스크림 등 단맛의 간식거리가 살을 찌우는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왔다. 최근 제과업계에서는 영양분이 풍부한 과일 가운데 '슈퍼푸드'로 분류되는 베리류와 견과류를 가미해 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맛으로 식감을 살리면서도 건강까지 고려한 신제품들이다.

먼저 천연 과일을 품은 초콜릿이 있다. 허쉬코리아가 선보이고 있는 슈퍼프루츠 과즙을 감싼 다크 초콜릿 '브룩사이드'는 아사이베리·블루베리·석류, 고지베리·라즈베리를 부드러운 젤리로 만들어 허쉬 다크 초콜릿으로 감싸 만들었다. 초콜릿 안에 천연 과일 즙을 젤리 형태로 만들어 넣어 초콜릿을 씹을수록 달콤함과 과일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찹쌀떡의 전유물이었던 팥고물이 모습을 바꿨다. 신사동에 위치한 카페 모찌 이야기는 쫀득한 찹쌀떡에 딸기와 키위·바나나 등 신선한 생과일을 부드러운 팥과 같이 넣어 상큼함을 살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과일을 통째로 넣었기 때문에 과일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영양까지 챙긴 신종 아이스크림도 탄생했다. 나뚜루팝이 선보이고 있는 '월넛 13세'는 건강에 좋은 호두가 함유된 제품이다.

◆이색 조합으로 새로운 맛과 기술을 접목한 음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식재료를 넣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변화된 음료도 등장했다.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조합으로 달콤함을 살리고 상상 밖의 특별한 맛과 향을 제공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jy1150@metroseoul.co.kr

"3월 3일 삼겹살데이" 대형마트마다 할인 삼겹살 데이(3월 3일)를 앞두고 롯데마트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내산 냉장 삼겹살과 브랜드 삼겹살 등을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삼겹살을 최대 41% 할인 판매한다. 또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간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을 33% 할인한다. /홈플러스 제공

더페이스샵 '수지's 스프링 세일'

품목별 20~50% 할인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다음달 10일까지 '수지's 스프링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봄 환절기 피부 건조함 해소에 효과적인 '망고씨드하트볼륨버터' 와 '치아씨드 피지잡는 수분크림' 대용량, 마스크시트 전 품목을 비롯해 봄철 필수 아이템인 미백 기능성 '스킨 보습광채' 라인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베스트셀러 3종' 등을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촉촉한 피부결과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봄 메이크업 제품 '쿠션 스크린셋'은 반값 할인 혜택과 함께 출시를 기념해 '쿠션 스크린셋 촉촉 메간 체험단' 행사를 진행한다.

더페이스샵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3000명을 추첨해 정품을 증정하고, 우수 후기 작성 고객을 선별해 추가 경품을 나눠준다. 이 밖에 피부 속 맑은 씨는 '에센스'를 30% 저렴하게 선보이고, 지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5만원 이상 제품 구매 고객에게도 5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한편 더페이스샵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한 5230억원을 기록해 브랜드숍 화장품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더페이스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11억원이었다.

2011~2012년 브랜드숍 1위를 차지했던 미샤는 지난해에는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지원기자

신세계면세점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문화재청과 26일 오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성영목(사진 왼쪽) 신세계조선호텔 사장, 나선화(오른쪽) 문화재청장, 이근복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으로 부산점 등 면세점 내에 무형문화재 작품 상설 판매처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할 예정이다.

해법에듀 셀파중등논술 스트리텔링 한국사 출시

천재교육의 해법에듀는 토론 논술 프로그램인 셀파중등논술 의 교육과정으로 '스토리텔링 한국사'와 '스토리텔링 근현대사'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해 한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스토리텔링 문제로 '벽 잡기' 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주요 개념의 맥락을 파악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지도와 연표, '함께 보는 세계사' 코너를 통해 세계사의 흐름과 한국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미세먼지 습격 속 기력보충 하세요

면역력에 좋은 간편식 강강술래 할인 이벤트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게 더욱 치명적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고객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www.sullal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다양한 건강상품 파격 할인 및 덤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

내달 2일까지 환절기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g×10팩·30인분)는 6만4800원, 소용량 세트(350g×10팩·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 피로 해소와 혈액순환 개선, 기관지염에 좋은 백두산 쉼(산)오미자 진액 100세트(80ml×30포)는 6만원, 농축액세트(240g×2병)는 3만원에 판매하며 2세트를 사면 1세트를 더 준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l.com) 이벤트에 신청 댓글을 남기면 명지대 산학협력단(BI기업 명지생활건강)이 만든 '명지아로니아 킹스베리'(23만원) 증정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정하늘기자 ksw0104@

엄친아 엄마처럼 우~아!

새학기 학부모 모임 위한 패션 – 첨단 유행보단 단정한 코디를

입학식 등 행사가 잦은 신학기 시즌 엄마들은 자녀의 학교에 갈 기회가 잦아진다. 학교를 방문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단연 옷차림. 또래 엄마들보다 젊고 세련된 모습으로 아이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스타일을 제안한다.

◆모노톤 또는 파스텔톤 재킷 '굿'

남들보다 튀고 싶다고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옷으로 학부모의 품격과 우아한 룩을 연출해야 한다. 모노톤이나 은은한 파스텔 컬러의 기본 아이템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 고민 없이 스타일링하기 좋다.

톤다운된 파스텔톤 재킷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매치하면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연출되는데, 재킷 안에 스트라이프나 플로럴 패턴의 셔츠를 입으면 한결 경쾌해 보인다. 크로커 [illegible] 트를 줬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로 신축성이 좋은 폴리 소재를 사용해 편안하다.

◆컬러풀한 클러치 백으로 엣지 룩

옷 다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가방이다. 학부모 모임에 갈 때 평소 들던 빅백 대신 작은 클러치를 들면 훨씬 감각적인 엄마로 보여질 수 있다. 이왕이면 모노톤의 의상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화려한 색상을 고르는 게 좋다.

화사한 컬러 백색이 돋보이는 올리비아 엘의 '클러치백'은 수납 공간이 넉넉한 장지갑 스타일로 어깨끈의 탈부착이 가능하다.

올리비아로렌 상품기획팀 노지영 이사는 "새 학기 학부모 모임에서는 단정한 스타일로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컬러 소품을 활용하면 세련된 포인트 [illegible]

서해 바다열차 다시 달린다

서울역~용유임시역 구간 코레일 내달 운행 재개

코레일공항철도는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주말 서해 바다열차를 공휴일(추석 연휴 제외)까지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행하기로 26일 밝혔다.

이 열차의 종착역인 용유임시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바닷가와 인접해 있으며 용유 8경 중 왕산낙조(왕산해변, 용유 제1경), 선녀바위기암(선녀바위 해변, 용유 제3경), 명사십리(마시안해변, 용유 제4경), 잠진어화(거잠포, 용유 제6경), 무의조무(무의도, 용유 제7경), 팔미귀범(소무의도 등, 용유 제8경) 등 6경을 바다열차를 타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다.

용유임시역 도로 바로 건너편에는 거잠포와 마시안 해변이 위치해 있다. 무의도(소무의도, 실미도)행 배가 출항하는 잠진도 선착장은 역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으며 선녀바위와 을왕리, 왕산해변 등은 역 앞에서 302, 306번 버스를 이용하면 10분 내에 도착한다.

이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공항역을 거쳐 용유임시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용유임시역 방면(하행) 11회, 서울역 방면(상행) 11회 등 하루 총 22회 운행된다.

하행열차는 오전 7시39분부터 오후 5시39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서울역을 출발하며 상행열차는 오전 9시27분부터 오후 7시27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용유임시역을 출발한다.

연장 구간에 대한 추가 운임은 없지만 인천공항역에서 용유임시역 구간만 이용할 경우 별도 운임이 부과된다.

코레일공항철도 측은 "당초 서해 바다열차는 올해 3월로 예정돼 있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인천공항역~용유역) 개통에 따라 운행이 종료됐으나 자기부상열차의 개통 시점이 6월 이후로 또다시 연기돼 수도권 시민의 여가 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운행 재개를 결정했다"며 "특히 정부가 여행 관광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관광주간(5월 1~11일, 9월 25일~10월 5일) 지정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공휴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다이소 "자취용품 다 있소" 26일 서울 다이소 종각점에서 모델들이 다이소 자취용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이소는 자취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방용품, 욕실 및 청소용품, 정리용품 등 자취 필수품 57가지를 추천했다. /다이소 제공

아웃도어시장 올해도 승승장구

삼성패션연구소 "16% 성장"

아웃도어 시장이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패션연구소는 26일 올해 아웃도어 시장이 약 1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6조9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 측은 "익스트림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형 아웃도어가 새로운 캐주얼 영역을 개척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스포츠, 골프, 키즈 등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전체 패션 시장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키즈 등으로 영역을 지속 확장하면서 전체 패션 시장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반종아웃도어는 예상됐다. 특히 캠핑의 수요와 함께 성장한 키즈 시장은 아웃도어를 가족이 함께 입는 패밀리룩으로 확장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반종아웃도어는 비롯해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기능성에 캐주얼한 디자인을 접목해 아웃도어에서도 도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어반 아웃도어룩'을 브랜드 콘셉트로 내세우고 있다.

/[illegible]

푸르밀 비피더스 드링킹요구르트 300ml 출시

사과·블루베리 등 2종

푸르밀은 드링킹 요구르트 1위 브랜드 '푸르밀 비피더스'의 소비층을 확대하고자 비피더스 드링킹 요구르트 300㎖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기존 140㎖에서 300㎖로 용량을 늘렸다. 또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비피더스 제품 중 매출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대중성이 높은 사과, 블루베리 2종으로 출시된다. 비피더스 드링킹 요구르트는 가까운 편의점, 슈퍼, 할인점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권장 소비자가는 1200원이다.

비피더스는 푸르밀의 대표 제품으로 변비 개선 등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장 건강을 위한 대표 유산균이자 위산을 통과해 장까지 살아가고 장 정착률이 높은 프로바이오틱 비피더스 유산균이 함유돼 있다. 푸르밀은 지난 1996년 비피더스 사과를 시작으로 매실, 포도, 블루베리, 고칼슘 지방 제로(플레인, 세븐베리), 그리고 2013년 파인애플&레몬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출시해왔다.

푸르밀 관계자는 "회사의 역점 품목으로서 '비피더스'의 라인업 강화를 통해 유산균 발효유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며 "'자연의 신선함'을 모토로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선진 종합식품회사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illegible]

진화하는 새로운 디스크 치료! 10분 고주파로 끝낸다

직경 작은 특수내시경 이용 재발 또는 터진 디스크부터 퇴행성 협착증도 치료 가능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오른쪽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져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며 수술을 권유했으나 S씨는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 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방문했다.

김상욱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제4, 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S씨를 진단하고 강남초이스병원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주로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이어 파열돼 흘러내린 추간판을 주사로 치료하는 에피듀랄 신경 치료술을 통해 탈출된 추간판을 수축시켜 통증을 완화시켰다. 이에 S씨의 상태는 바로 호전돼 S씨는 치료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근본적 치료, 재발 방지 중점

이처럼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기존의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또 S씨는 치료 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 재활치료센터에서 강남초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무중력 디스크 감압치료 ▲근력 강화 운동 등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등 주 2회씩 3개월 받았다.

이와 같이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특수 신경 성형술 또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선행한 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질환 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 등 통해 척추 치료를 선도·세계화 시켰다.

이를 통해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약화된 관절 및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 및 아이드역에 직영점이 및 척추 넘증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센터와 연골 및 인대 치료 재생센터도 설립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담배 연기 타고 연간 1조6000억 치료비 '증발'

담배회사 상대 피해소송 관련 건보공단 빅데이터 눈길

호주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흡연 피해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1조3000억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1년까지 770만 명을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진료비가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과 함께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이들의 진료비 총 지출은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2.9~6.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 수는 2012년에만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 수의 2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가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흡연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자와 담배회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더욱더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까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했다. 2005년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이 될 당시 이 사안이 의무조항이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방위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과의 법률 포럼을 진행하고 해외 자료도 수집했으며 그동안의 국내외 소송 사례 분석도 마쳤다. 또 건보공단은 준비한 자료와 흡연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과거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소송에 다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배가 인체에 매우 해롭고 여러 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금연 홍보 및 금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금연과 흡연 규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단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강호동이(위)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진으로 참여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상화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 눈물을 흘렸고(왼쪽), 마지막 올림픽을 마친 이규혁과 기념 셀카를 찍었다. 마지막 사진은 러시아 소치로 떠나기 전 우리동네 예체능 출연진과 의지를 다지는 모습

"이번엔 태권도… 의미있는 예능 얍!"

'우리동네 예체능'
강·호·동

"시청률보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KBS2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이하 '예체능')이 어느덧 방영 1주년을 앞두고 있다. 탁구, 배드민턴, 볼링, 농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선보이며 국민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건강 버라이어티라는 기획 의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국에 생활체육 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의 중심에는 강호동이 있다.

◆ 소치 특집 "감사하다"

천하장사 강호동은 예능인으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또 잠정 은퇴 후 다시 돌아와서 입지를 다진 프로그램이 '우리동네 예체능'이며 최근에는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중계까지 하며 스포츠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소치올림픽 중계 도중 이상화가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강호동은 "스포츠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한 번도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는데 소치 중계에 참여하게 돼 감사했다. 큰 역할이 아니었는데 관심과 격려를 받아서 과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곧 방송 1년째 생활체육 붐 견인… 팀원 소중함 깨달아

이어 "스피드스케이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런 경험을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되지 말자는 것이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낯설었지만 체육인으로서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노부부 부부싸움 멈춘 에피소드

첫 방영부터 각종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예체능'은 화요일 예능 시청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연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존 리얼 버라이어티와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다.

생활 밀착형 건강 버라이어티라는 새로운 콘셉트에 대해 강호동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접했지만 '예체능'은 더브나 체육이라는 장르는 혼자 잘해선 안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감한 땀을 흘리는 모습, 팀원 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좋다"며 "시청률보다 의미 있는 예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종목을 방영할 당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는 "30년간 배드민턴 때문에 할머니와 싸웠다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혼자서 배드민턴을 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체능' 방영 이후에는 함께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며 "우리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생활체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 다섯번째 도전 '태권도'

예체능팀의 다섯 번째 도전 종목은 바로 태권도다. 예체능팀은 시청자들과 한 팀이 돼 격파와 겨루기 등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소치올림픽 중계 첨엔 두렵고 낯설어 값진 경험… 큰 관심과 격려 과분해요

강호동은 "태권도를 단순히 겨루기로만 생각했는데 보여드릴 것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기원에 들어가는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사범님과 시범단을 보면서 '우리가 어설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태권도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절제 등 배울 것이 많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동호회와 대결을 벌인 탁구·배드민턴 편과 달리 태권도 편은 생활체육을 넘어 예절과 스포츠 정신을 되새기게 될 전망이다. 그는 "이규형 대사범님의 철학적인 말씀과 더불어 태권도를 통해 무예뿐만 아니라 정신과 예의와 예절 등을 많이 배우도록 하겠다. 더불어 시청자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예체능' 태권도 편에는 이규형 국기원 원장과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정국현 사범이 도움을 준다. 기존 '예체능' 다섯 MC와 함께 2PM 찬성, 빅스타 필독, 인피니트 호야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정성준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한지민 '늑대아이'에 목소리 기부

배우 한지민(사진)과 민규동 감독이 배리어프리영화 '늑대아이'에 참여한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26일 올해 첫 작품으로 '늑대아이'를 선정했으며 4월 초 완성될 예정이다. 민규동 감독이 연출하고 한지민이 화면 해설로 참여하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제작된다.

앞서 한지민은 올해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로서 '엔딩노트'에 목소리 출연했다. 또 그와 함께 참여하는 민규동 감독은 "'늑대아이'는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어서 배리어프리 버전 연출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 김태용 감독, 배우 김성균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올해 제작되는 배리어프리 영화에 각각 한 편씩 연출과 화면 해설 재능기부에 참여할 예정이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자막을 넣은 영화다.

'늑대아이'는 평범한 여대생이 그와 늑대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키우며 엄마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2012년 9월 개봉했다. /전효진기자 jsonh@

"많은 분에 상처, 힘들었다"

'논문표절 논란' 스타강사 김미경 1년만에 방송복귀 "떨리지만 기뻐요"

논문 표절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스타 강사 김미경(사진)이 JTBC 새 프로그램 '나만 그런가'로 복귀한다.

김미경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3월 MBC '무릎팍도사' 이후 약 1년 만에 돌아왔다. 긴장되고 떨리지만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그는 솔직한 화법과 명쾌한 강연으로 tvN '김미경 쇼' 등 각종 예능·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뒤 학교 측으로부터 인용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만 연구 주제의 독창성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평가받았다"며 "표절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나를 믿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꿈을 향해 가자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힘들었다"며 "예전에는 청중들이 날 기다리며 다가왔다면 이제는 내가 (청중들을) 기다리고 다가간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꿈 말고도 얘기할 수 없는 운명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좀 더 넓고 깊은 운명이란 주제로 강연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첫 방송될 '나만 그런가'는 김미경과 전현무가 공동 사회를 맡아 주제와 연관 있는 실제 사례자를 초대해 토론하고 솔직한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석천, 윤영미 아나운서,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설수현 등이 고정 패널로 참여한다. /김지민기자 ga.kim@metroseoul.co.kr

'폼페이…' 개성만점 4색 포스터 공개

프랑스, 독일, 스웨덴, 호주에서 공개된 각기 다른 개성의 폼페이 포스터(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흥행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이 개성 강한 해외 포스터들로 화제를 모은다.

26일 공개된 프랑스·스웨덴·독일·호주의 포스터는 각 지역의 관객 특성에 맞춰 영화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포스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 직전의 순간을 포착했다. 18시간 만에 사라진 폼페이의 마지막 순간과 대규모 재난을 포스터에 생생하게 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웨덴 포스터와 독일 포스터는 화산 폭발을 뒤로하고 노예 검투사 마일로 역의 키트 해링턴과 검투 액션을 강조한 구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호주의 포스터는 영화 속 주요 인물의 존재감에 초점을 맞췄다. 로마 상원의원 코르부스(키퍼 서덜랜드)와 폼페이 영주의 딸 카시아(에밀리 브라우닝), 마일로(키트 해링턴)의 모습을 통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난 20일 개봉한 '폼페이…'는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주차에도 모든 극장 사이트에서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황순호기자 suno@

CGV 무비꼴라쥬 3월 상영작 '인사이드 르윈' 선정

다양성 영화 역대 최단기간 10만 명 돌파를 앞둔 '인사이드 르윈'(사진)을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CGV 무비꼴라쥬는 다양성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확대 상영하는 '무비꼴라쥬데이' 행사의 3월 작품으로 '인사이드 르윈'을 선택했다. 이 행사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전후에 CGV 용산·왕십리·영등포 등 전국 30여 개 극장에서 관람료 5000원에 진행된다.

'인사이드 르윈'은 천재 감독 코엔 형제의 열여섯 번째 장편영화로 2013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등 전 세계 비평가들의 격찬을 받았다. 심금을 울리는 포크 음악으로 국내 영화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과 화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황순호기자

박성웅 알고보면 따뜻한 남자

팬 이벤트 '오빠가 쏜다' 열어

박성웅이 팬과 당첨자 추첨으로 뽑은 팬에게 포옹을 해주고 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박성웅(사진)이 팬미팅에서 영화 '신세계'의 살벌한 캐릭터 이중구에서 벗어나 따뜻한 남자로 변신했다.

박성웅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5일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박성웅의 팬 이벤트 '오빠가 쏜다!'를 열었다"며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배우가 직접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는 당초 70명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500통이 넘는 신청 e메일이 왔다"며 "지방은 물론이고 멀리 해외에서도 온 팬도 있을 정도로 그 반응이 정말 대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성웅은 앞치마를 두르고 등장해 팬들의 잔에 와인과 음료를 따라주고 스테이크를 썰어주는 등 다정한 남자의 모습을 보였다. 또 신청 e메일 중 눈에 띄는 사연을 직접 뽑아 포옹, 백허그 등 팬 서비스를 선사했다. 이후 박성웅은 모든 팬들과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는 등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박성웅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많은 사랑과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진심으로 연기하며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팬들 사랑한다"고 말했다.

박성웅은 지난해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 역할로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십을 시로잡았다. 이후 후속작 tvN 드라마 '우와한 녀'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에 이르기까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현재 박성웅은 영화 '역린'과 '황제를 위하여' 촬영을 마친 상태다. /김지민기자

"진정성 있는 연기 보일 것"

박유천 '쓰리데이즈'서 대통령 경호원 맡아…"액션신 맨몸 소화"

박유천(오른쪽)과 소이현이 제작발표회에서 '쓰리데이즈'를 상징하는 '3'을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정성 있게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SBS 새 수목극 '쓰리데이즈'(다음달 5일 첫 방송)에서 진지하게 연기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26일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그린 것은 없다. 다만 배우로서 박유천이 진지하게 연기에 임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가 느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유천은 극의 탄탄한 구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연기를 하면서 대본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섬세한 구성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대본을 받자마자 꼭 출연하고 싶었다. 대선배들에게 배워가면서 촬영하고 있다"며 "쓰리데이즈'의 치밀한 구성이 시청자에게도 전해질 것을 확신했다.

드라마 출연 배우들의 박유천을 향한 칭찬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작품에서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 손현주(이동휘)는 "박유천은 오래 같이 배우다. 정말 성실하고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건강한 젊은이"라고 극찬했다.

박유천은 현재 방영 중인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와 비교해 "초능력이 없어서 모든 액션을 몸으로 해야 한다"며 "전작과 상관없이 수준 높은 액션으로 멋진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유천은 '쓰리데이즈'에서 대통령 경호원 한태경 역을 맡아 불의를 보면 주저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에 대해 "한태경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극중 캐릭터를 소개했다.

박유천·손현주·박하선 등이 출연하는 '쓰리데이즈'는 '뿌리깊은 나무'의 신경수 PD와 '유령'의 김은희 작가가 1년 이상 기획한 작품으로 장르적 특징이 강한 드라마다.

/전효진기자 jh@metroseoul.co.kr

차승원 3년만에 안방 복귀

로맨스 수사물 '너희들은 포위됐다'서 형사 맡아

배우 차승원(사진)이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그는 5월 초 방송될 SBS 새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가제)에 주인공 형사 서판석으로 출연한다. 2011년 6월 종영한 드라마 '최고의 사랑' 이후 공백기를 보낸 그는 영화 '하이힐' 촬영에 전념해왔다.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강남경찰서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수사물로 한 번도 형사를 꿈꿔본 적이 없는 4명의 1년차 신입 형사들과 이들을 도맡게 된 최고의 수사관 이야기를 다룬다. 빼어난 비주얼을 갖춘 4명의 신입 형사들의 일과 사랑을 그려간다. 차승원이 연기할 서판석은 형사과 강력 2팀장으로 다혈질에 투철한 직업 의식을 지닌 수사관이다.

드라마 '자이언트' '샐러리맨 초한지' '돈의 화신' 등을 연출한 유인식 PD와 '굳세어라 금순아' '외과의사 봉달희' '오작교 형제들'의 대본을 맡았던 이정선 작가가 호흡을 맞춘다.

차승원은 "최고의 제작진들과 함께하게 돼 기대되고 설렌다.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만큼 좋은 연기로 보답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별에서 온 그대'의 후속 '쓰리데이즈'에 이어 방송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천송이·도민준 사랑 해피엔딩?

오늘 종영 '별그대' 결말 관심집중…"대본 수정 고심"

종영까지 한 회만을 남긴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사진)의 결말을 놓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외계남 도민준(김수현)과 톱스타 천송이(전지현)의 사랑이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다. 현재는 천송이가 도민준을 위해 그를 고향 별에 보내기로 결심한 가운데 도민준이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시청자들은 도민준이 지구에 남아 천송이와 행복하게 살지 혹은 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고향에 돌아갈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천송이를 함께 안타까운 외사랑을 한 이휘경(박해진)과 살인자인 그의 형 이재경(신성록)에 대한 결말도 큰 관심사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결말은 비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박지은 작가가 마지막 회 대본을 내놓고도 결말을 수정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오두가 만족할 만한 결말을 내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김수현·전지현 주연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드라마는 30%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400년 전 지구로 온 외계남과 톱스타의 사랑이라는 신선한 소재, '대세남' 김수현과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전지현의 열연과 매력이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이끌었다.

또 국민드라마 반열에 오른 '내 딸 서영이'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한류스타 박해진과 소시오패스 살인자로 분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신성록의 한류도 극에 긴장감을 부여하여 재미를 높였다.

/박지원기자 bak@

오렌지캬라멜 내달 싱글 발표

3인조 여성그룹 오렌지캬라멜(사진)이 새 앨범 발매일을 확정하고 컴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음달 12일 새 싱글 '까탈레나'를 발표한다. '마법소녀' '아잉~♡' '방콕시티' '상하이 로맨스' '립스틱' 등 발표하는 노래마다 큰 인기를 거두며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왔던 오렌지캬라멜은 '까탈레나'에서 또 한 번 강한 개성을 드러낼 예정이다.

파격적인 콘셉트로 화제를 모아왔던 이들은 새 앨범에서는 개그맨 정태호·김대성과 협업에 관심을 모은다. 두 사람은 티저 이미지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 이번 활동의 전체적인 기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오렌지캬라멜 소속사 플레디스 관계자는 "정태호·김대성씨는 개그콘서트'의 아이디어 뱅크이자 여장 등 독특한 캐릭터를 맛깔나게 잘 살려내는 개그맨이라 참여를 요청했다. 무대에 함께 서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많은 부분을 논의하며 여러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까탈레나'는 12일 낮 12시 온라인에 공개되고 13일 오프라인 음반으로 출시된다.

/유순호기자

이민호 해외투어 연기 영화 '강남블루스' 매진

배우 이민호(사진)가 쏟아지는 해외 러브콜을 뒤로하고 영화 촬영에 전념한다.

드라마 '상속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동남아 8개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한 이민호는 다음달 일본 요코하마 콘서트를 끝으로 연기 활동에 들어간다. 그는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공연은 하반기로 미루고 4월 영화 '강남블루스' 촬영에 돌입한다.

이민호 소속사 관계자는 "공연 재연이 수십 건에 이르며 해외 톱 가수의 활동 공연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에는 이민호 콘서트'를 방자해 가짜 티켓이나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며 "당분간 영화 촬영에 집중할 계획이며 차후에 의미 있는 기획으로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해외에서 붐기 시작한 이민호 열풍은 '시티헌터'와 '상속자들'을 거치며 더욱 뜨거워졌다.

이민호는 1970년대 강남 개발을 소재로 한 유하 감독의 '강남블루스'에서 감도 높은 액션과 짙은 카리스마를 보여줄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자난해 축제 참가자가 울진대게를 잡아 놓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아래 사진은 대형 김밥말이 행사 모습.

요놈 토실한 집게발로 추억 '콕!'

28일~다음달 2일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올겨울 대미를 장식할 맛 축제가 열린다. 바로 '생태문화 울진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라는 주제로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개최되는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다. 대게잡이 항구로 유명한 후포항에서 갓 잡힌 겨울철 동해안 별미가 오감을 자극한다.

◆속살 가득한 대게를 공짜로

축제에서는 우선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를 공짜로 맛볼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무료 시식장이 열려 축제를 찾는 누구나 대게를 실컷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후포수협 위판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경매도 실시된다. 관광객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 대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낙찰한 대게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삶아 먹을 수도 있다.

또 울진 대게 대형 김밥말이, 게살 김밥 만들기 등의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대게 수제비, 대게 칼국수 등 대게 요리 시식 코너도 준비된다.

◆대게로 즐기는 색다른 추억 가득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진행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울진 대게를 잡아라, 대게 게줄 당기기, 훌라후프 돌리고 대게 빨리 먹기, 동전 쌓고 대게 게살 발라 먹기 등 대게를 이용한 색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12잠 바지게꾼 놀이 마당극, 거리의 악사, 열린 음악회 등의 공연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송어와 오징어 등을 잡는 바다의 보물을 잡아라 체험 행사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울진 대게 원조 마을을 찾아가는 요트 체험을 비롯해 후포항에서 요트를 타고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무료 선상 일출 바다 여행도 축제에 재미를 더한다.

◆놓칠 수 없는 대게 선물세트

이와 함께 울진군청과 축제 진행위원회는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홍보 이벤트'로 울진군청은 20명을 추첨해 10만원 상당의 울진 대게 또는 붉은 대게 선물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대게 축제 포스터를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등록한 후 자신이 홍보한 사이트의 주소를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 남기면 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2월 28일~3월 2일
- 장소: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
- 문의: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진행위원회 054)787-1331

덕구온천·백암온천 "으~ 이맛이야"

대게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요즘 울진은 온천 명소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게의 참맛을 즐긴 후 온천욕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보자.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덕구온천

응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덕구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알려진 곳이다. 해발 998.5m의 응봉산에서 흘러나오는 덕구온천의 온천수는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근육통 등에 효과가 있으며 덕구호텔에서는 스파와 야외온천장을

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나무 온천 뒤로 솟은 응봉산에서의 등산도 가능하다.

◆관광 특구 이름값 하는 백암온천

천연 알칼리성 온천인 백암온천은 소선 광해군 시절 관중 주부 사 기자연이 풍진 치료를 위해 찾으면서 유명해진 온천이다. 온천수에는 나트륨, 불소, 칼슘 등 몸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만성 피부염, 자궁내막염, 부인병, 동맥경화 등을 가진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백암온천은 관광 특구로 지정돼 있어 호텔과 온천장이 다양하게 들어서 있으며 어름이면 백암온천축제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백암온천으로 이름난 백암산 자락 동쪽에는 울진백암온천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평범한 농촌마을인 자연 속에서 온천욕을 즐기며 전통 먹거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농촌테마마을로 지정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을 완비했으며 전통 황토숯가마도 운영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양평단월고로쇠축제

- 날짜: 3월 15~16일
- 장소: 경기 양평군 단월레포츠공원

고로쇠 수액을 마음껏 시음할 수 있는 축제는 축제의 성황과 축제를 찾는 사람들의 무사안위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한다. 특히 세상에서 제일 긴 고로쇠 김밥 만들기와 보물찾기등산대회 등에는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고로쇠 막걸리, 고로쇠 주어탕 등 고로쇠로 만든 다양한 향토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 날짜: 2월 27일~3월 2일
- 장소: 서울 강남구 코엑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여행 전문 박람회로 올해 행사에는 300여 단체가 참가했다. 또 행사에서는 임실치즈 체험, 코레일 열차 체험, 생태관광 체험을 비롯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체험거리가 마련되며 '내나라 구석구석 한바퀴관'에서는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

◆독립기념관 3·1운동 문화행사

- 날짜: 3월 1~2일
- 장소: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는 삼일절 기념식과 함께 3·1 만세운동 재현, 3·1 운동 정신 계승 걷기대회, 나라사랑 태극기 댄스 퍼포먼스,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게다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태극기 손도장 찍기, 무궁화 꽃 만들기, 3·1 만세운동 포토존 등의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윤석민 선발 나올수도"

美 CBS 스포츠 보도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윤석민(28 볼티모어 오리올스 사진)이 선발 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BS스포츠는 26일 우발도 히메네스-크리스 틸먼-천웨이인-버드 노리스-미겔 곤살레스 등을 1~5선발로 예상하면서 윤석민과 케빈 가스먼도 선발진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올해 볼티모어의 전력을 분석한 CBS스포츠는 "볼티모어에 확실한 에이스 투수가 없지만 두터운 선발층을 자랑한다"며 "히메네스 틸먼 천웨이인 외에 남은 선발 자리를 놓고 노리스 곤살레스 가스먼-잭 브리튼이 경쟁한다. 윤석민도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할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민의 올해 보직은 선발보다 롱 릴리프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매체는 볼티모어 불펜진 구성을 예상하며 윤석민을 긴 이닝을 소화하는 중간계투 로 표명했다.

댄 듀켓 볼티모어 부사장도 "윤석민을 선발투수로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 마무리로 뛰었던 경험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벅 쇼월터 감독은 "윤석민의 훈련 과정을 지켜본 후 보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민은 다음달 7일 탬파베이 레이스나 8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유순호기자 sune@

프로야구 억대연봉 시대

1인당 1억638만원 기록
원년보다 775.6% 늘어
15억원 김태균 '연봉킹'

국내 프로야구가 1년 연속 600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억대 평균 연봉 시대를 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10개 구단 올해 소속 선수 현황을 발표했다. KBO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10개 구단 1·2군 전체 선수 연봉 총액은 507억4500만원으로 평균 연봉 1억638만원을 기록했다.

선수 평균 연봉은 2010년 평균 8417만원을 기록한 이래 매년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원년인 1982년(1215만원)보다 평균 연봉이 775.6% 늘어난 셈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도 지난해(121명)보다 15명 늘어나 역대 최다인 136명이 됐다. 최고 연봉은 김태균(32 한화)의 15억원이며 이어 강민호(29 롯데)가 10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올해 KBO에 등록된 선수는 기존 477명과 신인 92명, 외국인 선수 28명 등 모두 597명이다.

구단별로는 3연패를 달성한 삼성이 평균 1억4050만원으로 최고 연봉 구단 자리를 지켰고 LG가 1억2164만원, 롯데가 1억16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스토브리그의 '큰손'으로 활약한 한화는 평균 1억1564만원으로 지난해의 8623만원보다 평균 연봉이 무려 34.1%나 상승했다.

1군 진입 첫 해인 지난해 평균 5836만원을 기록한 NC도 2년차를 맞이 7713만원으로 평균 연봉이 32.2% 다 올랐다.

선수 평균 연령은 27.2세, 평균 신장은 182.8㎝, 평균 체중은 86㎏으로 각각 집계됐다. 두산의 크리스 볼스테드(28)와 장민익(23)이 207㎝로 최장신 선수, KIA 김선빈(25)이 165㎝로 최단신 선수로 각각 등록됐다. 최준석(31 롯데·130㎏)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선수로 기록됐다.

최고령 선수인 류택현(LG·42세 3개월8일)과 최연소 선수인 삼성 신인 박계범(18세20일)은 24세 이상의 나이 차이를 보였다.

/장성우기자 ysw@metroseoul.co.kr

프로야구 연도별 평균연봉 추이

임창용 생존경쟁 스타트 ·오늘 평가전 등판

임창용(사진)이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한 실전 피칭에 나선다.

임창용은 27일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의 뉴 컵스 파크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 자체 평가전에 등판한다. 26일 시카고 컵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전 명단에 따르면 임창용은 네일 라미레스·아로디스 비즈카이노·아르민도 리베로·브라이언 실터·마커스 해틀리·와다 쓰요시 등과 함께 불펜에서 대기한다.

6이닝으로 치르는 이번 자체 평가전에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진입을 노리는 마이너리그 유망주들이 대거 등판한다. 릭 렌테리아 컵스 감독은 28일 열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을 하루 앞두고 메이저리그 진입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모았다. 임창용은 가장 나이 많은 유망주로 명단에 포함됐다.

임창용을 포함한 7명은 스프링캠프를 통해 메이저리그 진입을 노려야 하는 경쟁자들이다.

임창용은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즈 소속이던 2012년 7월 오른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고, 2013년 1월 컵스와 계약했다. 마이너리그를 거쳐 지난해 9월 5일 메이저리그로 승격한 임창용은 6경기에서 5이닝 6피안타 3실점,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4 AFC 챔피언스 조별리그 전북 이승기(11번)가 요코하마에 첫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선제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부름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동계체전 나흘간 열전 돌입

소치올림픽의 열기를 이어받아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6일 강원 평창 드래곤밸리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제95회 동계체전은 다음달 1일까지 2518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가운데 평창·서울·충남 아산·경북 의성 등에서 종목별 경기가 열린다. 소치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체육계는 이번 대회가 겨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4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서울시청)를 비롯해 모태범·이승훈(이상 대한항공) 등이 스피드스케이팅에 출전한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공상정(유봉여고), 김연아와 함께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한 박소연(신목고)도 경기에 나선다.

프로농구 전적 26일

SK	25	13	17	16	71
KCC	15	5	23	13	56
동부	17	15	20	21	73
LG	14	25	15	20	74

프로배구 전적 26일

도로공사	3	2	인삼공사
LIG손해보험	0	3	삼성화재

울산현대-전북현대 AFC챔피언스리그 공격 축구 승리 신고

울산현대와 전북현대가 2014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나란히 화끈한 공격 축구로 승리를 신고했다.

울산은 26일 오후 5시30분 호주 시드니의 파라마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턴시드니 원더러스(호주)와의 대회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먼저 골을 내줬지만 김신욱·고창현·강민수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3-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울산을 이끈 김호곤 감독의 뒤를 이어 사령탑에 앉은 조민국 감독은 공식 데뷔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화하게 미소를 지었다. 팀은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이날 김신욱은 경기전 약속대로 득점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조 감독에게 첫 승을 바쳤다. 또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다음달 6일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골맛을 보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와의 G조 1차전에서 이승기의 멀티골 등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뒀다.

전북은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미드필더 김남일과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이 가벼운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건재함을 과시하며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우승후보 0순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장성우기자 ysw@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26일

전북	3	0	요코하마
울산	3	1	시드니

"콩밥 먹는다"는 말의 역사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콩밥은 영양 면에서 맞도 좋다. 반면 우리말 이미지는 최악이다. 왜 그럴까? 예전 교도소에서 콩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콩밥 먹는다"는 말과 지금 교도소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콩밥=교도소'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은 것을 보면 재소자에게 콩밥은 꽤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교도소에서 콩밥이 사라진 것은 1986년부터다. 지금은 쌀 90%, 보리 10%의 잡곡밥이지만 앞으로는 100% 쌀밥을 제공한다고 한다. 반면 옛날에는 주로 콩밥을 먹었다. 재소자 영양도 고려하고 값도 싸기 때문에 콩밥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감옥이 그렇게 휴머니즘이 넘치는 곳이 아니다.

1957년 형무소 재소자들은 쌀 30%, 보리 50%, 콩 20%가 섞인 잡곡밥을 먹었다. 콩이 20%면 쌀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때는 더했다. 1936년 형무소 식단표에는 쌀 10%, 콩 40%, 좁쌀 50%로 적혀있다. 이 정도면 콩 덩어리에 좁쌀 몇 알 붙은 수준이다. 하루 세끼 이렇게 콩 덩어리를 먹는다는 것은 고역이다.

얼마나 먹기 싫었으면 콩밥 먹는다는 말이 다 생겼을까? 콩밥이 어떤 식사였는지는 1936년 신문에 실린 동시(童詩)에서 짐작할 수 있다.

"콩밥을 보면 넌더리가 나요. 우리 집은 매일 콩밥만 짓지요. '엄마, 나 콩밥 먹기 싫어. 쌀밥 지어. 응?' 하고 졸랐더니 엄마는 '없는 집 자식이 쌀밥이 뭐냐. 어서 먹지 못하겠니'라며 부지깽이를 들고 나오셨다. 나는 꿀꺽도 못 하고 안 넘어가는 콩밥을 억지로 넘겼지요."

교도소에서 쌀밥을 준다니 느낌이 묘하다. 앞으로 "콩밥 먹는다"는 말 대신 "쌀밥 먹는다"는 말이 생기겠다. /음식문화평론가

날씨

2/27 木 일출시각 07:07 일몰시각 18: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4/13 · 춘천 2/14 · 대전 6/16 · 전주 5/14 · 광주 5/16 · 제주 8/13 · 강릉 2/8 · 울릉도 0/8 · 대구 8/14 · 포항 8/14 · 울산 8/14 · 부산 8/16

일상생활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묻는 신체 부위는 손입니다. 따라서 1830 손씻기 습관(하루 8번 30초씩)으로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 가능지수
뇌졸중 가능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saul26.com

노후대책 없어 역학 공부 계획 일단 시작부터 해야 좋은 결과

hynin 69년 2월 6일 음력 저녁 식사 후

Q 혼자 된 지 3년 됐는데 노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 몇몇이 노인 복지회관 등에 역학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역학을 배워 작명이나 궁합 사주를 봐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A 인생은 세세생생을 두고 윤회의 근간이 인연이 되며 범식(凡識)에 의해 현생에 태어납니다. 범식의 기호는 사주라는 네 기둥과 여덟 글자로 기본계를 이루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성격이 결정되고 건강이나 재물 등의 관계도 성립됩니다. 여덟 글자가 뭉이라면 매일 맞는 우주의 시간들은 제 '물'기 마주치고 쥐게 되는 길이 됩니다. 마주치는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는 선이든 악이든 행위를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운명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 기호처럼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스를 수도 있는 것이니 뭐라도 시작해서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논하기 위해서라도 시작이 우선입니다.

가는 회사마다 사사건건 충돌 주관은 지키되 인내심 키워야

콘서트 남자 73년 3월 24일 음력 오후 2시

Q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옮기게 됩니다. 꾸준하게 다니고 싶어도 상사나 동료들과 자꾸 충돌합니다. 제 인내심 탓이 가장 크겠지만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상담 신청합니다.

A 갑목(甲木) 사주가 인수 나를 생해(生)로 두간(癸干)되니 잡기인수격입니다. 정록(正수)(...) 푸른 숲이 알곡을 내미는 갈래하여 미래에 권력가 두텃해지는 귀한 사주입니다. 성장이 분목(나무가 필요)에 마른으로 인내심이 부족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드러낼 때가 많아 직장이 안정에 문제가 되고 마음의 병이 유입니다. 주변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주관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나 상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겠으니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진짜으로 느껴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격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연 관계상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에 정확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9		1			
3	1							5
8	4		5				3	
4				7	3	2	9	
				9				
	9	3	2	5				4
	8				5		2	3
6							1	8
			7		4	5		

9	2		8		5	6		4
				6		9		
	6		7					8
		9		5			1	
2			3		7			5
	8			2		7		
4					1		6	
		1		3				
6		3	2		4		8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편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저음)

신점[神占] 운세

2월 27일(음 1월 2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여럿사람 말이 귀 기울여라. 60년생 투자에 욕심 부리면 돈만 날린다. 72년생 비난과 비판은 다툼을 염심할 것. 84년생 야망을 자극하는 영감 생긴다.

소 49년생 중대한 일은 성사된다. 61년생 큰일 하려면 한 가르지 마라. 73년생 작은 바퀴 많은 짐을 실을 수 없다. 85년생 검은돈 오가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호랑이 50년생 근심은 사라지고 여유가 넘치는구나. 62년생 위기는 전화위복이 된다. 74년생 가슴 벅찬 경사 생기니 기대하라. 86년생 오리무중인 일은 가닥 잡힌다.

토끼 51년생 유치한 생각이 마음을 잡게 한다. 63년생 색안경 끼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75년생 가뭄에 단비 내린 격. 87년생 연락 뜸하면 사랑도 식게 되니 명심.

용 52년생 이심전심 구설수 조심할 것. 64년생 문서 큰은 서두르는 게 좋다. 76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도 방심은 금물. 88년생 재원이니 발표하면 박수 쏟아진다.

뱀 53년생 움직이면 일이 즐긴다. 65년생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전진하라. 77년생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생긴다. 89년생 운기가 불길하니 매사에 신중하라.

말 42년생 잔안팔은 한 발 물러서라. 54년생 살까는 세월이 흐르면 아문다. 66년생 시간은 많은데 갈 곳이 없는 형국. 78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

양 43년생 살가운 배우자가 사랑스럽다. 55년생 투자할 곳은 신중하게 골라라. 67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79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원숭이 44년생 충고는 짧게 칭찬은 길게 하라. 56년생 불안한 마음 안정된다. 68년생 혼자만 즐기지 말고 베우자도 생각하라. 80년생 환경 바꾸고 새 출발 하면 좋다.

닭 45년생 대세를 따르면 순탄하다. 57년생 변수가 있더라도 조지일관할 것. 69년생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다. 81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부르니 참고하라.

개 46년생 분수 모르는 배우자 때문에 부글부글. 58년생 근심이 구름처럼 사라진다. 70년생 내 것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마라. 82년생 한 가지 일에 매달리이 좋다.

돼지 47년생 자녀 때문에 귀한 대접받는다. 59년생 운전 중 사고에 조심할 것. 71년생 오늘 일을 미루면 내일 더욱 힘이 든다. 83년생 어른들의 충고 귀담아들어라.